

1980년대의 직물디자인 경향 및 그 사적 의미

The Trend of Textile Design in the 1980s and
Its Mean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주저자 : 박남성 (Park, Nam Sung)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섬유디자인전공

1. 서론

2. 1980년대의 시대적 배경

- 2-1. 기술주의
- 2-2. 예술·문화지향
- 2-3. 감성의 추구

3. 직물의 예술화 경향

- 3-1. One-off스타일
- 3-2. 신기술과 감성의 접목

4. 직물 소재표현의 다양화 경향

- 4-1. 입체적 직물 표현
- 4-2. 미래 감각적 소재

5. 직물의 문화적 내용 중시 경향

- 5-1. 에스닉 양식
- 5-2. 복고풍

6. 결론

참고문헌

- 1) An appreciation of the creative aspect of the Textile. As attempts are made to emphasize visual and sensitive aspects of the medium, Textile tended to become an object of art itself.
 - 2) A new awareness of the representative and plastic capacity of the fiber material. As attempts are made to develop the creative potential of the Textile, representation of the material tended to become more diversified.
 - 3) A recognition of the Textile as a proper means to deliver the spirit of the time. As the medium accommodates and fuses diverse cultures including traditional culture, more emphasis was placed on cultural contents of the Textile.
-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se changes, Textile design of the 1980s has also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new values, laying the groundwork for its emergence as an advanced high value-added industry.

(要約)

19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직물디자인이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미적 효과 창출에 있어서나 위상 정립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시기였다. 이 시기는 섬유 공학기술 발달에 의한 첨단 소재의 등장, 예술·문화 지향에 의한 공예기법의 구사, 감성추구에 의한 장식성의 부활에 의해 직물디자인이 첨단화, 고급화, 차별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직물디자인의 현대적 개념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80년대 전개된 직물디자인의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고, 이러한 새로운 경향이 제시한 직물의 다양한 미적 창출방법과 조형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직물디자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80년대는 직물의 창조적인 면을 중시함으로써 직물에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다양한 시도로 직물의 예술화 경향이 대두되었고
- 2) 80년대는 섬유 소재의 표현성 및 조형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다양한 창조가능성을 개발함으로써 소재표현의 다양화를 시도하였으며
- 3) 80년대는 직물이 시대정신을 전달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이해되어 전통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과 융합으로 직물에 문화적 내용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80년대는 직물디자인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직물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첨단 산업의 한 분야로 인식되게 되었다.

(Abstract)

During the 1980s, Textile design achieved a remarkable growth in creating aesthetic effect and in establishing its standing by responding to demands of the time effectively and seeking changes proactively. This was a period when Textile design constructed its modern concept as it was attempting a qualitative improvement through advanced technology, high class, and differentiation. The advent of advanced material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extile engineering, employment of craft techniques to further cultural and artistic orientation, and restoration of decorativeness in pursuit of sensitivity, all these developments of the 1980s contributed to the rise of above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attempts are made to grasp the new trend of Textile design during the 1980s and to review diverse methods of aesthetic creation and plastic possibility which this trend presented for the Textile, and thus to recognize the role of Textile design and its importance in a new light.

The new trend of Textile design during the 1980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Keyword)

Textile Design, Textile, 1980

1. 서론

직물의 산업화가 성립되면서 등장하게 된 직물디자인은 섬유산업의 기계화와 함께 판매경쟁이 시작되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는 직물디자인이 단순히 직물무늬 디자인 방법에서 벗어나 점점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포함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하였고, 미술·디자인·공예 그리고 기술 사이를 넘나드는 표현으로¹⁾ 새로움을 창조하였다.

특히 1980년대는 직물디자인에 있어 커다란 전환의 시기로서, 이 시대에는 섬유 공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신소재 개발, 자동화된 생산과정의 발전, 예술, 문화 지향 및 감성 추구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 직물디자인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다. 즉 직물디자인은 기술혁신의 가속화, 품질의 고급화 및 생활의 다양화에 따른 개성 추구에 의해 첨단화, 고도화, 전문화, 개성화 되었고 기성의 가치를 초월한 다양한 시도가 전개 되었다. 직물디자인은 이러한 신소재 개발과 패션성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새로운 유행과 소비를 선도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내의 연구 경향에서 보면 직물이 의상이나 실내용품의 소재라는 부차적 역할에 국한되어 물리적, 기능적 측면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이르러 디자인 및 예술적 관점으로 연구된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나,²⁾³⁾⁴⁾ 이 역시 패션에 한정지어 접근함으로써 직물의 표현효과 및 창조적 요소로서의 가능성을 폭넓게 연구한 것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이의 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직물디자인이 구축한 현대적 개념 및 이의 영향이 역사적으로 직물디자인의 현대적 위상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관점 하에 80년대 전개된 직물디자인의 새로운 표현 방법 및 창조적 의미를 분석하여 직물디자인의 새로운 흐름과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1980년대 직물디자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조망하고자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80년부터 90년까지를 연구시기로 하였으며 문헌조사 방법에 의한 이론적 고찰과 1980~1990년까지 해외의 직물, 패션 전문지 등에서 추출한 사진을 바탕으로 실증적 고찰을 하였으며, 이들을 토대로 1980년대의 직물디자인이 제시한 경향 및 의미를 분석하였다.

2. 1980년대의 시대적 배경

19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직물디자인 및 직물 산업구조에 커다란 전환의 시기였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70년대를 지배했던 경제적인 침체와 사회적 긴장에서 벗어나는 반동의 시기로서 이에 따른 생활 상승지향으로 고급화 경향이 두드러졌고, 이와 함께 미술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미술, 공예품 수집 또한 활발

하게 진행됨으로서 직물 디자인에서는 정교하고 장식적인 고대 공예기법과 전통적 패턴이 부활하였다. 또한 첨단 섬유공학 기술에 의한 새로운 섬유소재의 창조와 자동화되고 유연성 있는 생산과정의 발전으로 미래적이며 하이브리드한 직물이 생산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현대 산업직물 디자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⁵⁾ 이러한 결과 산업직물은 양적인 팽창기로부터 질적인 성숙기로 방향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산업직물디자인에 있어서도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이 강조된 예술직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산업직물이 소재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직물 경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시대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1. 기술주의

20세기 과학의 발달은 테크놀로지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가져옴으로서 이의 사회적 이용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인간의 의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로 변모되면서 전 시대의 산업사회에서와는 다른 산업형태와 생활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정보화 사회는 고도의 과학 기술을 주축으로 하여 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양 중심의 소비형태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정보를 중시하는 질 우선의 소비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정보화 사회는 예술 및 디자인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테크놀로지에 근거한 사상과 감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적 미를 창조하였고 종래의 가치관과 미학 체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⁶⁾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우리문화를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첨단 과학 분야에서 비롯되어진 테크놀로지 영향은 직물산업에도 첨단소재개발과 직물의 미래지향적 이미지 구축에 직접관계 되었으며, 결국 기술의 역할이 감각의 변화까지 초래하여 전위적이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새로운 직물경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1980년대는 섬유공학 기술의 발달에 의한 섬유 신소재가 출현하여,⁷⁾ 직물에 기능성 향상은 물론 소재의 응용과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러한 첨단소재에 예술·공예적 감성을 결합시킴으로서 새롭고, 실험적이며 미래적 감각의 예술 직물이 등장하였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성격의 요소들을 합성하여 미래적 환상과 감각을 전달하고, 미래의 가상 현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기계적 메시지 등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적 이미지를 상징하였다. 이러한 기술과 예술의 접목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 시도는 현대적 직물디자인 창조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0년대의 직물디자인은 과학기술개발에 따른 창의적 감각 및 독특한 표현이미지 확립에 있어 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1) 피터 도머, 강현주조미아역: 1945년 이후의 디자인, 도서출판 시각과 언어, p. 217, (1995).
2) 이선화: 현대패션에 나타난 Textile Design 연구, 복식 제21호, (1993).
3) 이효진: 현대패션디자인 소재에 표현된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제32호, (1997).
4) 염혜정: 1980년 패션에 나타난 텍스타일 경향과 특징에 관한 연구, 복식 제41호, (1998).

5) Chloe Colchester, The New Textiles. Thames and Hudson, p. 6, (1991).
6) 이봉덕: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p. 56, (2000).
7) 장지혜: 신피복재료학, 신광출판사, pp. 204-205, (1996).

이룩하였으며, 이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첨단 산업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2-2. 예술·문화 지향

80년대에는 70년대를 지배하였던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과거의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촉진되고, 아울러 현대미술 및 공예 등이 새롭게 조명됨으로서 예술·문화 지향의 시대정신이 사회 전반에 두드러졌다. 직물도 당시의 문화 상황이나 미술사조와 깊이 관련하여 교류를 심화시켰고 시대성과 변화에 적극 반응하였다.

1980년대에는 문화가 보편화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직물도 다양한 문화적 내용을 담아내었고, 더욱이 60~70년대의 기술·과학,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사회의 문화 가치에 대한 회의에 의해 직물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즉 직물의 외형적인 면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직물이 포함하고 있는 내적인 의미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직물을 개념화하고자하는 경향으로 고대 페루의 직물 제작 기법에서부터 동남아 지역의 방염에 이르기까지 고대 직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⁸⁾

또한 1980년대는 미술시장이 활기를 띠게 됨으로서 현대미술 및 공예품의 수집이 활발해졌으며 이러한 예술 취향의 분위기는 텍스타일의 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쳐 정교한 기술적 구사와 사치스러운 장식적 요소가 가미된 고급 직물이 등장하였고 아울러 직물의 고급화 경향이 대두되었다.⁹⁾

이러한 예술·문화 지향의 시대적 분위기는 1980년대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문화 예술사조와 관련하여 더욱 심화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과거의 문화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 혼합, 접목의 방법으로 현대의 시대상황과 절충하여 새로운 절충 주의적 문화 양식을 수립하였다.¹⁰⁾ 이 예술조류는 디자인 전 분야에 확산되었으며, 패션·직물디자인에도 역사상 여러 문화로부터 다양한 이미지를 도입하거나, 전통기법을 새로운 문화적 요소들과 결합하거나,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양식들을 유희적으로 사용하여 재미를 더하는 등의 새로운 표현방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술양식은 그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문화전반의 시대정신에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¹¹⁾ 직물디자인의 예술양식의 반영은 디자이너의 예술 철학뿐 아니라 시대정신을 전달하여 한 단계 더 높은 고부가가치를 포함하게 되었다.

2-3. 감성의 추구

80년대는 산업화의 경제 발전에 따른 물질 풍요와 문화의 추구, 정보화의 경향으로 인간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가치기준, 욕구 성

향도 변화되었다. 이는 개인의 이미지와 감성이 기술이나 기능보다 중요시되는 감성추구의 정신적 욕구로서 현대 생활의 질적 추구하고 함께 다양화, 개성화 추세를 가속시켰다.

이러한 감성 추구의 시대적 환경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한 감성적 접근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산업 제품에 있어서도 유용한 물질적 가치와 함께 정신적 가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당시의 사회적 경향과 결부되어 고감도 사회, 감성사회라는 새로운 말이 등장하였으며,¹²⁾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정서적 가치 창출의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80년의 정보화 지식사회에서도 고도의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그것에 인간의 감성적 특성을 결합시킨 하이테크, 하이테크 스타일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는 고도의 기술이 도입되면 될 수록 그 반동으로 인간적이고 따뜻함이 요구되어¹³⁾ 현대의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에도 자유로운 감성과 유희 감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직물디자인에도 하이테크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신소재에 예술·공예적 감각을 결합시킴으로서 새롭고, 미래적 감각의 직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재를 통해 풍요로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중심의 개념이 현대 직물디자인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80년대는 직물디자인이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하는 수공예적 요소 및 인간성 회복을 위한 자연주의적 이미지의 적극적 도입 등의 감성적 접근을 시도하여 개성화, 차별화된 디자인을 요구하는 현대인의 정서에 부합되고자하였다.

3. 직물의 예술화 경향

산업직물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직물로써 미적 가치추구 경향은 금세기 초에 이미 시작되었다. 직물이 화가들에 의해 디자인되거나, 회화 작품이 직접 활용되어 직물 패턴을 구축함으로써 직물 표면에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였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부 화가나 패션디자이너에 의해 일시적, 부분적으로 행하여졌고, 근래에 이르기까지 산업직물은 단지 의복이나 실내용품의 소재라는 부차적 역할에 국한되어 단순히 기능적이고 물리적 측면에서 평가되어 왔다.

1980년대에 이르러 산업직물은 인간의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을 부가시킴으로써 창조적인 면을 중시하게 되었고, 직물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고부가가치 부분의 디자인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미적 가치 추구의 예술과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직물의 예술화 경향은 1980년대의 첨단 공학기술에 의한 새로운 소재의 창조와 함께 생활상승지향으로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고급화 추세에 맞추어 산업 직물도 첨단화, 개성화, 차별화의 질적 향상을

8) Chloe Colchester, op. cit., p. 8

9) Ibid., p. 8

10) 경노훈·윤민희: 디자인 문화와 생활, 도서출판 예경, p. 57, (1999).

11)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청하, p. 14, (1991).

12) 염혜경, op. cit., p. 120.

13)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p. 681, (1995).

14) J.L Ferrier, 김정화 역, 20세기 미술의 모험, pp. 247-248, (1990).

도모함으로서 새롭게 평가 되었다.

특히 1980년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직물의 예술화 경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분위기에 의해 기존의 가치체계나 도덕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혁신적인 현상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이념은 디자인 전 분야에 확산되었고 직물디자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새 시대의 직물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이념에 의한 실험 정신을 바탕으로 실험적 양식에 기초를 둔 디자인, 즉 현실적이고 유머러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항적인 요소를 포함한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놀랄만한 이미지 구축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예술에서의 다양한 실험정신, 기법 등이 과감히 채택되었다. 이러한 젊은 디자이너들에 의한 다양한 실험정신은 영국을 중심으로 프린트 직물 디자인에 혁신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종래의 정적이고 기교중심의 완벽성을 요구하는 디자인에서 벗어나 즉흥적이며 잔혹한 느낌의 문양을 거칠게 프린트하거나 모순적 경향의 디자인을 시도하였고, 대량 생산 방식에 의존하던 프린트직물 디자인에 있어서도 복제 불가능한 회화작품에서와 같은 회소가치에 치중함으로써 one-off스타일이 크게 각광받게 되었다.¹⁵⁾ 이는 종래의 프린트직물이 회화적 표현에 의한 예술사조의 반영에서 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개성표현을 중요시함으로써 작가의 주체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3-1. One-off(유일) 스타일

영국의 조안나 골돈(Joanna Gordon)은 (그림1)에서와 같이 문양, 기법의 사용에 있어 전통적인 패턴디자인 방법에서 벗어나 발염 방법을 이용한 스크린 프린트 디자인을 시도하여 패턴의 반복이 아닌 One-off스타일에 의해 회화 작업에서와 같이 자유분방하고 개성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거칠고 흠이 있는 듯한 낡은 직물 표현은 현대 프린트 직물디자인에 혁신적인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정교하고 우아한 오프뀌뜨리의 고급 직물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운 미와 매력을 창조하는 예술적 표현으로 평가 되었다.

1987년 크리스찬 라크르와(Christian Lacroix)의 직물 담당인 실비에 스킨나지(Sylvie Skinazi)는 열전달 프린트를 이용한 프린트 방법으로 즉흥적이며 생동감 있는 프린트 디자인 방법을 개발하여 예술 직물 창조에 기여하였다. (그림2,3)에서의 수영복과 전사용 디자인 작업에서 보여지는 자유로운 이미지는 천 위에 안료를 직접 용해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손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며, 예술작품과 같이 One-off스타일의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라크르와가 강조 했듯이 이러한 프린트는 복제 불가능한 것으로 고가의 회화 작품과 같은 가치를 유발하였다.¹⁶⁾ 이러한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은 직물의 표면에 질감과 깊이 감을 강조함으로써 하이테크

디자인에서 보여 지는 차고 깔끔한 분위기에 반하는 미학적 특징으로 각광받았다.

영국의 디자이너 알리다 에프스트라티우(Alida Efstratiou)는 수직을 이용하여 상당히 장식적이고 환상적으로 자연을 이미지화 하였다. (그림4)는 금속실을 사용하여 직조한 후 손으로 조직을 변형시켜 물결무늬 패턴을 형성하고, 금속의 조형성을 이용하여 자연의 추상적 이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One-off스타일의 입체적 의상을 제작하였다.¹⁷⁾ 이 의상은 금속의 독특한 특징인 광택성이 빛 뿐 아니라 직조의 방법에 따라 금속사의 반사각도가 달라져 가변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다양한 조형성을 피할 수 있는 금속 소재의 특징을 이용하여 예술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3-2. 신기술과 감성의 접목

직물의 예술화 경향은 1980년대의 첨단 공학기술에 의한 신소재 개발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되었다. 이는 첨단소재에 수공예 기법에 의한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을 부가시킴으로서 종래의 직물 표현과는 상당히 차이점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과 기묘한 변화를 유도하여 미래적 감각과 패션성을 함유하는 예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수공예와 과학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표현은 산업직물에 창조적 영감을 부여하였고 예술성에 의한 감성적 직물을 제안하였다.

전통적 수공예 직물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은 첨단소재에 수공예기법을 적용시켜 전례 없는 새롭고 경이로운 직물을 창조하였다. 일본의 대표적 직물 디자이너인 유니찌 아라이(Junichi Arai)는 1950년부터 꾸준히 개발해 온 아름다운 광택의 금속성 섬유로 제작된 직물에 일정한 문양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시보리 기법을 적용시켜 (그림5)에서와 같은 예술직물을 창조하였다. 창작의 시작이 되는 최첨단 기술에 의한 바탕천 제작은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등의 필름에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금속을 진공 증착 시킨 다음 투명 라커를 필름 양면에 바른 후 이 필름을 줄 띠로 가늘게 잘라 날실로 만들어 견, 모, 마, 먼 등의 천연소재를 씨실로 직조함으로써 이뤄진다. 시보리 기법은 문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바탕천은 산과 알카리를 사용하여 금속부분을 녹여(melt-off) 투명한 폴리에스테르만 남겨지거나, 천연섬유를 태워(burn-out) 금속성 섬유를 남기고, 남겨진 각각의 투명한 폴리에스테르나 금속성 부분은 다시 염색되어 방염된 시보리 부분의 문양과 대조를 이룸으로서 감성과 기술이 어울려지는 독특한 미감을 창출하였다.¹⁸⁾ (그림6)은 금속부분이 melt-off되고 남겨진 폴리에스테르에 열 전사 프린트 기계를 이용하여 열처리에 의한 영구 주름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감각을 전하고 있다.

아라이는 자카드 직물 제작에도 신기술에 수공예적 요

15) Chloe Colchester, op. cit., p. 16.

16) Ibid., p. 15.

17) Ibid., p. 22.

18) Cara McCarty and Matilda McQuaid, Structure and surface. p. 22, (1998).

소를 첨가함으로써 혼합 자카드(combination jacquard)라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여 세계의 직물 디자이너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그림7)의 자카드 직물은 일반 직물에서와 달리 실의 탄성을 일정하게 조절하지 않고 단단히 꼬아진 실(high-twist yarn)을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직조함으로써 직물 면에 탄력 있는 질감을 나타내며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아라이는 80년도 중반에 150여 종류의 각기 다른 성질의 합성 섬유 및 천연 섬유를 제직에 사용하였으며, 이 실들은 꼬임, 강도, 두께, 수축률에 있어 각기 다른 성질을 갖도록 방직되었다. 특히 그는 상반되는 성질을 가진 실들을 동시에 제직에 사용하여 제직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의 다양한 변화를 실험하였고, 고온의 열처리나 드라이어에 직물을 던져 넣음으로서 실의 특성 및 직물의 구조와 문양에 따라 실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함으로써 왜곡에 의한 입체적 효과로 흥미 있는 직물 면이 형성되었다.¹⁹⁾

이러한 실의 다양한 제조 공정 및 복잡한 컴퓨터에 의한 자카드 디자인 방법은 결국 아라이가 수공예 직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효과를 존중하고 현대의 첨단 산업기술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이 새로운 직물은 가능하게 되었다.

4. 직물 소재표현의 다양화 경향

직물의 표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재는 현대에 이르러 과학의 발달과 의식의 변화로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의 표출로 새로운 창작의 장을 마련하였다.

섬유소재가 물리적 재료라는 국한된 의미에서 벗어나 표현대상으로서의 소재로 인식되어진 것은 1960년대 섬유예술의 출현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섬유예술에 있어 섬유라는 개념은 단지 물질이나 조형수단으로서의 매체일 뿐 아니라 작가의 표현 의도나 목적에 미치는 미술 재료를 의미한다. 이는 매체로서의 섬유 개념에서 메시지로서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재료에 대한 의미와 문제의식을 직시하여 현실적 대상으로 섬유를 간주하고 사유함으로써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시켰다.²⁰⁾ 섬유예술은 섬유재료의 전통적 의미인 부드러운 표현을 넘어 다양한 재료와 방식, 새로운 표현의식의 확대로 새 시대 디자이너에게 직물에 대한 다양한 기법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섬유소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섬유의 개념과 사용범위가 역할확대 됨으로서 소재는 디자인 못지않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는 섬유공학의 발달에 의한 신소재개발로 어느 시기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재개발이 이루어 졌으며 이 새로운 소재는 예술적 감성을 병행시킴으로서 직물디자인에 창조의 근원을 제공하였다. 신소재의 등장은 기존 소재를 가지고 다루어왔던 디자이너들의 상식을 변화시키고 디자인의 기능과 형태 표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

시함으로써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였다.

4-1. 입체적 직물표현

1980년대에는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촉각적 느낌을 다양한 가공법이나 기법에 의해 새로운 직물로의 개발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3차원적인 부조적 경향의 직물 출현이다. 60~70년대 대량생산에 의해 각광받던 직물표면에 이미지를 부가하는 프린트디자인 경향에서 벗어나 점점 정교하고 노련하며 실험적인 부조적 직물로 관심이 이전되었으며, 직물디자인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직물자체의 성격에 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직물이 실용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요소가 제품의 가치를 좌우하게 되고 개인의 기호가 존중받게 됨으로서 다양한 시도가 전개된데 연유된다.

3차원적인 부조적 직물표현으로는 열처리에 의한 주름잡기, 약품을 이용한 요철효과, 주형틀에 의한 입체효과 등이 있으며 이들은 직물의 외관이나 취급에 큰 변화를 주었다.

주름잡기는 고대 그리스, 이집트에서부터 사용되던 고대 기법으로 가장 쉽게 부조적 직물표현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²¹⁾ 2차대전 이후 개발된 열가소성 합성 직물의 출현은 열에 의해 수축되는 섬유의 물리적 성질을 응용하므로 영구 주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8)은 이세이 미야케(Issay Miyake)의 디자인 철학을 구체화한 그의 콜렉션인 "pleats please" 의상으로서 폴리에스테르 오간디를 열처리에 의해 영구주름을 형성한 다음 주름의 효과를 최대한 응용하여 입체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평면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직물이 움직이는 조각과 같은 매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영국의 텍스타일 디자이너 나이젤 애킨슨(Nigel Atkinson)은 열 반응성 잉크를 사용하여 직물의 뒷면에 수공 프린트함으로써 (그림9)에서와 같은 요철효과와 질감을 가진 생동감 있는 해파리 모양의 부조적 직물을 개발하였다. 그는 또한 (그림10)에서 산업용 프린트 방법의 하나인 수용성 고무를 이용하여 직물에 프린트 한 다음 고온에서 열처리를 함으로서 영구적인 입체적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나이젤은 이 새로운 기법의 선구자로서 직물의 특성에 따른 유연하고, 질감적이며, 투명, 불투명성 등의 결과를 얻기 위해 약품에 의한 프린트 방법으로 직물을 다양한 형태로 조작함으로써 감성적 직물 표현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특수하게 처리된 직물들은 로메오 질리(Romeo Gigli), 이세이 미야케, 마틴 시탄(Martine Sitban)과 같은 디자이너들의 의상이나 무대 디자인, 실내디자인 등의 직물에 고루 사용되고 있다.²²⁾

4-2. 미래 감각적 소재

직물의 소재가 새로운 시각적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부가

19) Chloe Colchester, op. cit., p. 20.

20) 유선태: 현대섬유예술의 이해, 미진사, p. 22, (1995).

21) Sarah E. Braddock and Marie O' Mahony, Techno Textiles, Thames and Hudson, p. 73, (1999).

22) Ibid., p. 79.

되는 것은 섬유만의 범위를 벗어나 알루미늄, 구리선, 스텐레스 스틸 등의 금속과 함께 비닐,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다. 이 재료들은 80년대 각광받는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로 인해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 다채로운 재료들은 그 응용 범위가 무한해지고 있다. 이 재료들은 보통 섬유소재와는 다른 이질적인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재료의 사용은 새로운 시각적 재질감과 함께 이질적 소재들을 포함한 부조화적인 시도들이 디자이너에게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미적 충동을 유발시키는 흥미와 생동감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들 소재가 가지고 있는 반투명성과 영롱한 색상은 현대 미학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부분으로 직물 디자인에서도 적극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하였다.²³⁾ 반투명성과 영롱한 색상은 직물을 비물질화 시킴으로서 투광, 반사, 투명합의 효과를 나타내고, 컴퓨터에 의한 가상의 세계에 대한 현대적 반응을 대변하며 직물이 실내에서의 다양한 광선의 조작에서도 적절히 대응하게 하였다.

이들 소재의 등장은 1960년대 우주에 대한 관심으로 우주주의 대두 및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한 가상현실세계에 대한 현대인의 미래세계의 동경을 반영함으로써 각광 받게 되었다. 무기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금속, 빛나는 소재의 투명합성수지 등은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로 인해 미래지향적인 전위 감각을 나타냄으로서 80년대의 패션, 직물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였다.

직물디자인에서는 금속과 함께 금속의 재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금속성안료, 실이나 직물에 금속을 진공 증착시키는 기법이 개발되었고, 빛 반응성 염료, 고 반사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및 락카 프린트 등이 빛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료로 이용되었다. 금속성 섬유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주로 종이에 금속 호일을 부착시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는 다양한 금속성 효과를 내는 직물 방법이 개발되어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등의 필름에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금속을 진공 증착시킨 다음 투명 락카를 필름 양면에 바른 후 이 필름을 줄따로 가늘게 잘라 실로 만들어진 슬릿안(slit yarn)을 이용하여 금속효과를 내고 있다.²⁴⁾

일본의 직물회사 누노(Nuno)는 필름 기술을 이용한 슬릿안을 얇고 가벼우며 투명한 스께 스께(Suke Suke) 직물에 사용하여 신비스럽고 아른거리는 아지랑이 같은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누노는 슬릿안을 (그림11)에서와 같이 나일론과 함께 직조하여 투명함을 표현하고 이 직물은 뒷면이 폴리우레탄과 면으로 이루어져 앞면의 투명함과 어우러져 안개 같은 효과를 나타냄으로서 현대적 감각을 전하고 있다.

금속적 표면 효과를 위하여 일본의 텍스타일 디자이너 레이코 수도(Reiko Sudo)는 스텐레스의 광택을 가진 특수 직물을 개발하였다. (그림12)에서 보듯이 폴리에스테

르 직물 면에 압착롤러를 사용하여 직물을 평편하게 한 다음 크롬, 니켈, 철의 조합에 의한 스텐레스 스틸의 금속 가루를 뿌려 직물 위에 도금시킴으로서 스텐레스 스틸의 광택이 나는 직물을 완성하였다. 이 금속가루 입히기(spatter-plating)는 자동차의 장식용 금속 마감재에 사용되는 기술로서, 이 방법은 직물조직의 밀도와 다양한 금속 종류에 따라 표면질감이 다르게 나타난다.²⁵⁾

주니찌 아라이에 의한 실내용 직물인 (그림13)은 티타늄이 증착된 슬릿안으로 나일론 필름과 함께 직조됨으로서 단순한 체크 디자인을 넘어 영롱한 색상과 반투명성의 재질에 의해 미래적 감각의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영국의 디자이너 스텐프 후렌치(Stephen French)는 직물의 광학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굴곡된 표면에 레이저 광을 이용하여 디자인하였다. (그림14)는 양각된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알루미늄이 분사된 베네치안 블라인드에 레이저 광을 전이시켜 현란한 색상을 형성함으로써 전위적 감각을 자아내고 있다.²⁶⁾

5. 직물의 문화적 내용 중시 경향

직물은 역사적으로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생활필수품으로서 일상용품, 장식품, 종교적인 오브제, 장신구용으로 다양하게 제작되어 사용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소비용품보다는 하나의 언어수단이었고, 사회계급의 상징, 과학발전의 반영, 정신문화의 승화된 차원을 보여주었다.²⁷⁾ 이리하여 직물은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선 정신적, 정치적, 사회적인 맥락을 표현하는 종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시대의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다.²⁸⁾ 각 지역의 서로 다른 민족성에 의한 관습에 따라 발전된 특유한 직물문화는 오늘날에도 많은 공예가 및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풍요한 창조 작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5-1. 에스닉 양식

1980년대에 이르러 특히 직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이는 현대인이 대량 생산에 의한 제품의 동일화, 획일화에서 벗어나고자 하였고, 산업사회에서의 문화 가치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면서,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흐름과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를 갈망하여 전통 문화를 연구하게 된 데 기인한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자국의 문화만이 아닌 비서구권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문화 확산의 결과로서 문화의 차별화, 문화의 개별성을 인정함으로써 비주류 문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과 융합현상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에스닉 양식이 등장되

25) Cara McCarty and Matilda McQuaid, op. cit., p. 24.

26) Chloe Colchester, op. cit., p. 38.

27) 유선태, op. cit., p. 65.

28) Kax Wilson, 박남성·차임선역: 직물의 역사, 도서출판 예경, p. 21, (2001).

23) Chloe Colchester, op. cit., p. 38.

24) Nuno, SUKESUKE. Nuno Corporation, p. 25, (1997).

었다. 에스닉 양식은 과거의 순수성과 인간 문화의 뿌리에 대한 동경을 토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각 민족의 자연적 요인, 풍습적 요인, 재료·기법적 요인에 따른 민족의 특유한 문화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문화적 내용은 직물디자인에서 다양한 표현요소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데 색채에 의한 민족 고유의 선호색, 문양에 의한 전통문화와 종교의 상징적 의미, 전통적 소재에 의한 자연환경과 생활문화, 기법에 의한 생활 습관 등이 있다.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한 (그림15)는 아세이 미야케에 의해 디자인 된 바디 타이즈로서 일본의 전통문신에 사용된 문양을 현대적 재질의 타이즈에 프린트하여 원시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바디 타이즈에서 나타나는 질감은 인체에 실제로 문신된 것처럼 사실적으로 느껴지며 고무와 합성섬유의 혼합 직물은 장식적 기능의 문신과 어울려져 새로운 타입의 피부로 전환되어 생동감을 전하고 있다.²⁹⁾

(그림16)은 블럭 프린트에 의한 가구용 직물로서 강한 비잔틴과 중동 지방의 모자이크를 연상시키는 패턴을 사용하여 중세 베니스풍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수공의 블럭 프린트 기법을 사용하여 안료가 벨벳 직물 표면에 있어 도드라지게 함으로서 모자이크 패턴은 부조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직물에 사용된 기법과 이미지는 실제의 모자이크보다 훨씬 자유스럽고 느껴지나 정교한 수공예적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유지함으로써 고급스럽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³⁰⁾

블란서의 패트릭 피논(Patric Pinon) 직물 회사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모티브를 이용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에스닉적 직물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17)은 아랍의 글자를 모티브로 디자인함으로써 중동지역의 감성과 정서를 전달하고 있으며, (그림18)은 모자이크 패턴을 현대적 감각의 낙서적 표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채치 있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5-2. 복고풍

직물에 등장한 문화적 내용은 이국적인 모습과 함께 역사적인 테마를 재해석함으로써 강조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과거 문화에 대한 향수로 직물디자인에서는 전통 복귀의 경향으로 복고풍이 대두되었다. 1980년대 복고풍은 단순히 역사적 모방이 아니라 역사적 아이템을 이용해 현재의 문화적 배경에 알맞게 절충시킴으로서 절충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³¹⁾ 즉 역사적, 전통적 형식에 대한 복고적으로 과거의 요소들을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며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변화를 야기 시켰다. 직물디자인에 나타난 복고풍은 역사적 내용이나 자료·기법 등이 현대적 재질, 기술, 디

자인과 결합함으로써 향수를 이끌어 내거나 패러디에 의한 복고풍의 차용이 이루어졌다.³²⁾

과거의 역사적 내용을 인용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흥미를 제공한 직물디자인으로 (그림19)를 들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신성한 건축의 기둥 모티브를 확대, 왜곡 시켜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흑백의 현대적 감각으로 프린트 방법에 의해 재현시킴으로써 프린트 디자인에 기지와 유머를 포함한 디자인 방법을 제시하였다.³³⁾

1986년 프랑스 패션디자이너인 프랑소와즈 저버(Francois Girbaud)는 이집트산 면을 사용한 진 자켓 (그림20)을 그의 컬렉션에서 선보였는데, 이 자켓에는 이집트에서 면을 재배하는 과정을 만화적 표현으로 묘사하여, 소비자들에게 이집트면의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며 동시에 이 재료에 의한 제품이 내포한 "진실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³⁴⁾ 이는 현대의 소비자들이 화학섬유의 출현과 대량 생산에 의해 한동안 등한시 하고 있던 제품의 가치를 이러한 문화적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하였다.

나탈리 듀 빠스퀴에(Nathalie Du Pasquier)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현대적 양식으로 직물에 표현한 디자이너이다. 그녀는 현대 문명의 상징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도시적, 민속적, 역사적, 특히 고급과 저급 모두의 문화로부터 이끌어낸 장식적 기호, 상징 및 패턴들을 겹쳐서 합성하였다. (그림21)의 직물 패턴은 각기 다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즉 만화적, 낙서적 이미지, 1950년대의 건축과 페르시아 카펫이나 인디안의 나바호전통 직물 등을 합성함으로써 환각적 패턴을 형성하였다.³⁵⁾ 이러한 빠스퀴에는 패턴을 풍자적이고 은유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였으며, 이질적 요소를 이용한 복수적 디자인 접근 방법으로 긴장감을 유발하였으며 각기 다른 성격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패턴으로 어우러지는 직물디자인을 시도함으로써 1980년대 직물 디자인에 새로운 미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림22)는 18세기 초에 실크 직물에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던 추상문양을 1989년에 줄무늬와 체크 등을 첨가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독특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80년대 직물디자인에 나타난 경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된다.

1. 80년대의 직물디자인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대정신을 전달함으로써 예술에서와 같은 가치 추구의 경향이 대두되었고, 이는 직물이 한 단계 더 높은 고부가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직물디자인의 위상과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29) Fashion: The collection of the Kyoto Costume Institute. Taschen, p. 645. (2002).

30) Jack Lenor Larsen, Furnishing Fabrics. Thames and Hudson, p. 110, (1989).

31)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p. 41, (1991).

32) Chloe Colchester, op. cit., p. 35

33) Mary Schoeser and Celia Rufey, English and American Textiles. Thames and Hudson, p. 236, (1991).

34) Chloe Colchester, op. cit., p.13.

35) Ibid., p. 35

2. 80년대의 직물디자인은 창조적인 면을 중시하여 인간의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서 전례 없는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표현을 시도하여 직물에 다양한 조형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직물표현은 소재 경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소재가 의복이나 실내용품의 부차적 역할에서 벗어나 그 자체가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유행을 선도하는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80년대의 직물디자인은 80년대 전반에 미술계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이념이 추구하는 다원주의, 개성주의, 장식성의 부활 등에 영향을 받아 다문화적, 수공예적, 감성적, 복고적 요소가 가미된 직물표현으로 이 시대의 디자인을 특징지었으며, 이와 같이 직물디자인과 예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조형 예술적 표현으로 창조의 범위를 확장 시켰다.

4. 80년대는 기존의 개념을 초월한 다양한 시도가 직물에 전개 되었는데, 이는 이미지의 변형 및 혼합화, 독특한 소재의 응용 및 개발, 신기술과 전통기법의 접목 등으로 양극을 이루는 이미지들을 서로 변형·혼합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하거나, 직물만의 범위를 벗어난 다채로운 재료의 사용 등으로 기존 직물의 파괴와 창조가 다양하게 행하여졌으며, 현대적 개념의 직물디자인을 구축하였다.

6. 결론

1980년대는 직물디자인이 전 시대와는 구별되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사람들의 감성과 감각을 자극하는 직물이 창조된 시대이다. 이러한 직물은 새로운 가치가 가미된 소재로서 소재 그 자체가 디자인 요소로 작용하여 창조의 근원이 됨으로서 미적 창출의 시대적 분위기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1980년대의 직물디자인이 직물의 미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다양한 예술적 시도 및 내적 의미에 관해 조사·분석하고, 이 시대 특유의 시대적 배경이 현대적 개념의 직물디자인 구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80년대의 직물디자인은 기술주의, 예술·문화 지향, 감성추구의 시대적 배경에 의해 첨단화, 고급화, 개성화를 추구함으로써 직물표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직물디자인에 의한 소재의 질적 향상은 물론 시각적, 감각적 측면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서 부차적 요소에 지나지 않았던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새로운 직물 경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게 되었다.

80년대 나타난 직물디자인 경향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 직물의 창조적인 면을 중시함으로써 예술에서와 같이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표현을 과감히 시도하여 기존 직물의 파괴와 창조가 다양하게 행하여졌고 이러한 예술적 표현에 치중함으로써 직물의 예술화 경향이 대두되었고

둘째 : 섬유 소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의 표현성 및 조형성에 대한 다양한 창조 가능성을 개발하여 부조적, 입체적 직물 조형 및 다채로운 재료의 응용으로 인한 현대적 이미지의 직물표현을 제시함으로써 소재 표현의 다양화를 시도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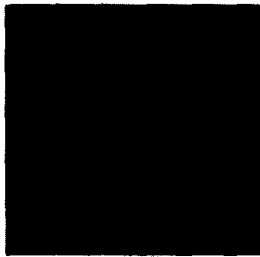
셋째 : 직물이 물질적 차원을 넘어 시대의 종합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시대정신을 전달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이해되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 및 과거 역사적 주제를 재해석하여 발전·재생시키는 등 다양한 문화적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의 직물디자인이 우세하였다. 이상과 같이 80년대는 직물디자인이 미의 창조에 다양한 아이디어 원천을 제공하였고 과학과의 접목에 의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감각 표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미의 형성에 크게 영향력을 발휘한 시대였다.

이는 80년대에 전개된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직물디자인에 창조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표현기법, 표현상황, 조형이념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조형 예술적 표현으로 현대적 직물디자인 개념을 구축하게 되었다.

직물디자인은 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소재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고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요소로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80년대 직물디자인이 제시한 경향과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미래 직물디자인의 방향설정과 개념 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Braddock. E. Sarah and O' Mahony, Marie. *Techno Textiles*.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99.
- Colchester, Chloe. *The New Textiles*.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91.
- Kyoto Costume Institute. *Fashion: The collection of the Kyoto Costume Institute*. Kyoto: Taschen, 2002.
- Larsen, J. Lenor. *Furnishing Fabrics*.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89.
- McCarty, Cara and McQuaid, Matilda. *Structure and surface*. New York: Harry N. Abrams, 1998.
- Nuno Corporation. *SUKESUKE*. Tokyo: Nuno Corporation. 1995.
- Schoeser, Mary and Rufey Celia. *English and American Textiles*.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91.
- 경노훈·윤민희: 디자인 문화와 생활, 도서출판 예경 1999. p. 57.
-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청하, 1991.
-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91.
- 유선태: 현대섬유예술의 이해, 미진사, 1995.
- 엄혜정: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텍스타일의 경향과 특징에 관한 연구, 복식 제41호 1998.
- 윌슨 퀘스, 박남성·차임선역: 직물의 역사, 도서출판 예경, 2000.
- 이봉덕: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2000.
- 이선화: 텍스타일 디자인, 미진사, 1991.
- 장지혜: 신피복 재료학, 신광출판사, 1996.
-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1995.
- 페리에 장-루이, 김정화역: 20세기 미술의 모험, 에이피인터네셔널, 1990.
- 피터 도머, 강현주·조미아역: 1945년 이후의 디자인, 도서출판 시각과 언어. 1995.



1. Joanna Gordon,
Discharge-printed
velvets
The New Textiles,
p.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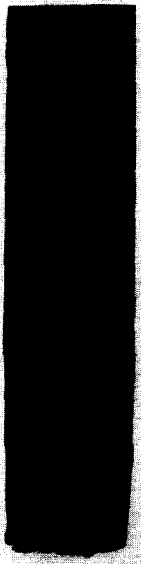
2. Christian Lacroix
1986
The New Textiles,
p. 43



3. Christian Lacroix, 1986,
The New Textiles,
p. 11



4. Alida Efstratiou
1988
The New Textiles,
p. 56



5. Junichi Arai,
1986
Eclipse/melt-off
Junichi Arai 개
인전,



6. Junichi Arai, 1985,
Yuragi(Fluctuation),
Structure and surface,



7. Junichi Arai, 1987,
Bark,
Jacquard double-woven
cotton / wool,
polyurethane,
The New Textiles,
p. 71



8. Issay Miyake, 1989
Dress,
Fashion: The collection of
the Kyoto Costume
Institute
p. 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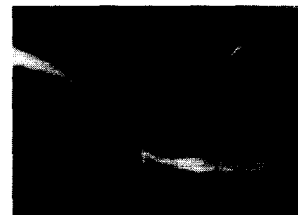
9. Nigel Atkinson,
1989,
Sea Anemone
Techno Textiles,
p. 78



10. Nigel Atkinson,
1989,
Heat-moulded fabrics
Rubber printed and baked
on silk,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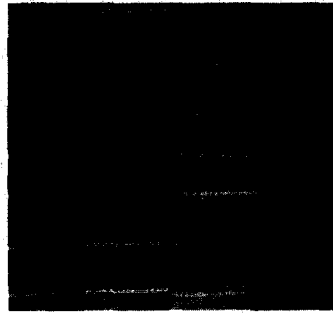
11. Nuno, 1987,
Mist,
SUKESUKE, p.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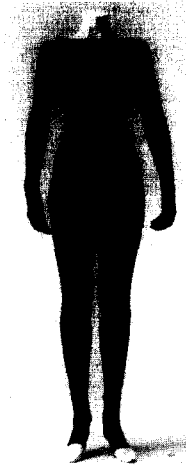
12. Reiko Sudo, 1990,
Stainless Steel Gloss,
Structure and surface, p. 55



13. Junichi Arai, 1985,
Check,
Furnishing Fabrics, p. 61



14. Stephen French, 1987,
Hologram Venetian Blinds,
The New Textiles, p.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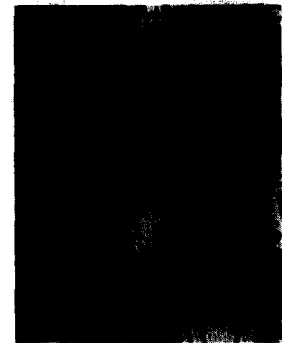
15. Issay Miyake,
1989,
Tattoo Body,
Fashion: The collection
of the Kyoto
Costume Institute
p. 645



16. Norelene,
Mosaico,
Furnishing Fabrics, p. 110



18. Patrick Pinon,
1988,
Motifs Mosaic,
The New Textiles,
p. 75



17. Patrick Pinon, 1988,
Arabic Calligraphy
The New Textiles, p. 75



19. Timney Fowler,
1985-6
Column TS28,
Furnishing Fabrics, p. 73



20. Francois Girbaud
1986,
Read Your Jacket,
The New Textiles,
p. 12



21. Nathalie Du Pasquier,
1986-7,
Mamouina,
The New Textiles, p. 78



22. Osborne & Little,
1988,
English and American Textiles,
p. 241